

近代 外科學의 創立者 Ambroise Paré(1510–1590)와 口腔外科

奇昌德
치의학용어심의 위원장
기창덕 치과의원장

역사이래 전쟁은 외과의학을 발전시켜 왔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환자에게 소량의 해독제를 섞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데운 딱총나무 기름으로 소독하는 방법이 유일한 전상환부(戰傷患部)의 치료였으나, 이 치료법이 개선되어 긴급치료로 환부의 소독과 붕대로 변하고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에도 많은 치료법이 개선되었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腸수술을 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胸부수술이 개발되었다. 한국전쟁에서는 血管수술의 성공을 보았고, 월남전쟁에서는 외상환자의 긴급수송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다.

이 현상은 원시적인 전쟁에서 근대화되면서 발전하는 무기의 파괴력이 강해지면서 대량학살을 겨누어 잔인한 위력 과시에 따라 일시에 많은 전상자가 발생하고 전상환부는 복잡성과 긴급성이 더해가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은 외과의사의 지혜를 요구하였고 결과는 외과학의 발전으로 이여졌다. 영국의 외과의사 Astley Cooper가 말한 “독수리의 눈, 사자의 심장, 여성의 손”이라는 표현과 같이 세밀한 관찰력과 대담한 실천력에 섬세한 손놀림이 외과의사의 특별한 자질이라고 했듯이 이 자질이 엄청난 전쟁 부상자의 구호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지적 종합과 이론적 사고를 동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외과의학 발전에 기여한 최초의 외과의사는 Ambroise Paré라고 소개하고 싶다.

**그의 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인정, 각국으로 번역되어 교본으로 읽혔으며
또한 전상환부 치료법은 현대 군진의학의 기초가 되었다.**

앞에서 밀한바와 같이 15세기까지의 전상환부 치료에는 Hippocrates, Galen 등이 주장했던 “해독제를 섞어 끓인 딱총나무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만을 당시의 이발외과의(理髮外科醫)들은 배웠고 이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00여년을 이어온 이러한 치료법을 Ambroise Paré는 그 한 세대에 바꾸어 놓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각국어로 번역되어 교본으로 귀하게 읽고 간직하게 되었다. Ambroise Paré가 개발한 전상환부 치료법은 현대 군진의학(軍陣醫學)의 기초가 되었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파괴력이 강한 무기가 출현되어 변해지는 전상환부의 치료법도 새롭게 고안되어 발전을 보게 되었다.

1510년 프랑스의 Normandy의 남쪽 Brittany의 동쪽에 접하고 있는 Maine주의 Laval에서 Huguenot계의 가구를 만드는 직공의 자식으로 태어나 처음 교육은 목사집에 하숙을 하면서 받았고 그후 이발외과의의 제자로 들어 갔다.

Ambroise Paré는 곧 Hôtel Dieu(파리시립병원)의 상주 외과의가 되었고 4년 후에는 Montajan장군을 따라 군의관으로 Turin성 작전에 종군하였다. 이때에

앞에서 말한 “끓인 딱총나무 기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 Ambroise Paré는 마침 “끓인 딱총나무 기름”이 없어 임시 응변으로 계란의 노란자, 장미유, Turpentine 등으로 만든 消化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대용 치료법의 효과를 관찰한 Ambroise Paré는 곧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재래법과 대용 치료법을 비교 시험하게 되었다. 결과는 대용 치료법의 효과가 뛰어나게 좋았고 환자의 고통도 적었다. 이 실험은 Ambroise Paré가 원시적 치료자로부터 근대적 의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창상치료(創傷治療)에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원칙을 넣게 하였다.

당시 프랑스에는 병을 치료하는 세 가지 층이 있었다. 맨 윗층은 지식으로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파리대학 의학부 교수단에 속해 있는 내과의로 이들은 유럽 다른 나라의 대부분 내과의와 같이 라전어와 그리스어로 교육을 받아 높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는 층이었다. 그들보다 낮은 계층 즉 접골의, hernia 절개술사, 발치술사 또는 절석(截石)술사 등과 같은 최저의 교육을 받은 돌파리같은 치료사들이 경멸을 받고 있는 맨 하층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중간 층인 St.Come학원의 회원들은 대학의 교수와 같은 의식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행세하고 있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이발외과의보다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항상 알력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발외과의가 우수한 임상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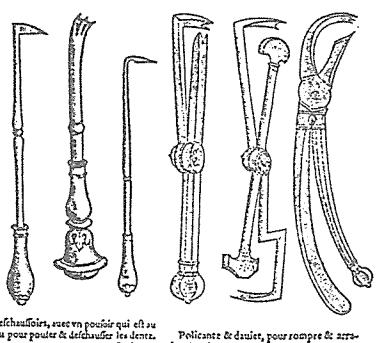
이러한 시기에 Ambroise Paré는 이발외과의로서 1539년 Montajan장군의 사망이후 높은 평판을 얻어 일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어 1541년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하고 그해 결혼도 해서 Seine강변 St. Michel다리 부근에 이발외과의의 Master로서 개업을 하였다. 개업은 성황하여 유복해지고 부근의 땅과 집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542년 Ambroise Paré는 다시 Rohan장군의 부대의 군의로 출정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Ambroise Paré는 다른 외과 군의가 성공하지 못한 몸에 밖인 총탄 적출수술에 패거를 올렸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이 무렵 Ambroise Paré의 명성은 높아져 전쟁이 끝나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파리대학 의학부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간의 창상치료 경험을 책으로 내놓으라는 권고를 받아 1545년 35세의 젊은 외과의 Ambroise Paré는 “火繩銃 또는 다른 화기 및 활촉(矢), 投槍 등으로 입은 외상의 치료법, 나아가 대포의 화약에 의한 火傷에 대하여”라는 <銃傷治療法>을 저술하였다. 이 책이 Ambroise Paré의 최초의 저서로서 그후 1550년에는 <解剖術 小論>을 출판하고 이어서 <총상 치료법>의 개정판을 내 놓았다. 이러한 전쟁터에서의 공적과 만인이 인정하는 그의 실력때문에 국왕은 Ambroise Paré를 국왕의 수석외과시의(首席外科侍醫)로 승진시키었다.

이발외과의가 이러한 지위에까지 승진했다는 사실은 프랑스 의학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분명해진 것은 외상이나 다른 종류의 병의 치료에 관한 최고의 지식이 이미 내과의 또는 St. Come의 외과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멀지되던 이발외과의가 우수한 임상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Ambroise Paré는 1564년에 “외과학과 이에 필요한 기

구에 관한 10편”이라는 제목으로 흥미 깊은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Ambroise Paré가 사용하던 각종 기구를 선명하게 그려 있고, 외과학은 물론 내과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

1589년 종교전쟁이 극단으로 치솟고 있을 무렵 파리가 포위당하고 Henry 3세가 암살 당한 후 Henry 4세가 왕위를 계승하고 평화가 실현될려고 하는 1590년 12월 20일, 80세의 Ambroise Paré는 자택의 자기 침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Ambroise Paré는 그 시대의 최고의 외과의로서 종지부를 찍었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일도 없어 많은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 저서와 논문들은 그후 수세기동안 외과의 규범이 되었고 각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혀져 유럽의 대부분 의사가 그의 기술을 배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의 책은 당시의 표준적 참고서로, 또는 便覽, 袖珍本, 그리고 이론적 외과교본으로 필요한 책이었다. 이들 책은 모국어(프랑스어)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파리대학의 고만한 교수들이 학술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해서 Ambroise Paré는 Hippocrates도 모국어로 기술하고 있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Ambroise Paré의 저서는 이미 소개한 것 이외에 <辨明과 旅行記>, <外科學 5篇>, <國王付 顧問官 首席外科侍醫 Ambroise Paré의 全集> 등이 있다.



Ambroise Paré의 발치 기구

Ambroise Paré는 구강영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Ambroise Paré는 戰傷外科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으나 치과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Ambroise Paré는 Hippocrates나 Fallopia 등의 말을 곧잘 인용하고 있다. “치아는 (뼈와 같이) 그 외부에는 감각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치아의 내부에 있는 막(膜)에 의해서만 감각을 가진다.”라는 Fallopia의 주장에 따라 치아내에 있는 치수를 암시하고 있다든가, Celsus가 강조한 “치통은 모든 고통중에서도 죽음과 맞먹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싫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 표현하고 있다는 것 등과 Hippocrates나 Galen의

저서를 인용하여 중세기부터 알려져 있는 구강질환에 물약, 불이는 법, 燻蒸法 등을 결론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Ambroise Paré 자신의 경험은 아닌 것 같으나 새로운 기록도 있다. 즉 현대치과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치아재식술, 치아이식술에 관한 기록도 있다. Ambroise Paré는 외상으로 치아가 치조골에서 탈구되었을 때 탈구된 치아를 곧 정복하고 옆의 치아에 결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친구가 劍刀의 자루로 얻어 맞아 하악이 골절된 것을 초를 칠한 실(絲)로 묶어 치료한 증례를 기록하고 있고, 귀부인의 치아를 발치한 후 곧 하녀의 같은 치아를 뽑아 그 자리에 심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치아를 제거하는 데는 拔齒와 切齒 두 가지로 나누어 치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치를 하고, 치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하는데 발치 때에는 하악

을 탈구시킨다든가 골절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의하고 있다. 그리고 발치법도 자세히 기록하면서 동통이 있어 발치할 치아를 잘못 알아 옆의 건강한 치아를 뽑는 수가 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악관절 틸구에 있어서는 3章에 이르는 자세한 설명과 방법, 그리고 주의와 증례를 열거하고 있다.

구강위생에 관한 주의로는 1. 식후에는 입안을 헹구어야 한다. 2. 치석을 제거해야 한다. 3. 굳은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4. 과일의 씨 같은 것이나 뼈 등을 치아로 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등을 열거하고 치마제(치약)를 몇가지 소개하고 있다.

보철에 대해서는 Ambroise Paré는 의치를 금선이나 은선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기술하면서 Hippocrates의 이론이라고 하고 있으나 Hippocrates는 의치의 고정에 대한 이론을 기술한 적이 없다. 이 외에도 口蓋裂閉塞器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人工口蓋(Obturateur)”라는 명칭은 1585년 Ambroise Paré가 지어낸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상외과에 못지 않게 구강영역에도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Ambroise Paré의 외과적 기술에 대한 영향은 매우 커서 구체적인 기술의 혁신이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의 사상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외과의의 역할과 외과학의 역할은 그의 일생동안의 일로 변화시켰다. 즉 의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의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의사는 다음 세대에 무었을 남길 것인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 Ambroise Paré는 새로운 image를 창조한 것이라고 본다.